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23 한국선에서 선과 교의 전통



▶ 한줄 요약

한국의 선종사에서 선과 교의 관계는 때로는 차별 내지 차이의 전통이 주장되었고, 때로는 일치 내지 융합의 전통이 강조되었으며, 때로는 선을 중심으로 삼고 교학을 보조적인 입장으로 내세우는 선주교종의 전통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차별·융합 오간 한국 禪·敎 역사

1. 선교차별에서 선교융합으로

한국의 선종사에서 신라 말기 선법의 수입시기에 선법을 정착시키려는 과정에서는 선교차별(禪敎差別)의 모색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가지산문(迦智山門)의 도의(道義)가 승통 지원(智遠)에게 제기한 무념무수(無念無修)의 문답, 사굴산문(闍崛山門)의 범일(梵日)이 제기한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 성주산문(聖住山門)의 무염(無染)이 제기한 무설토론(無舌土論) 등은 처음으로 소개하는 선법을 홍보하려는 궁여지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과 교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동은 고려 중기에 이르러 보조 지눌(普照知訥, 1158~1210)에 의해 융합적인 전통으로 형성되었다. 지눌은 선사이면서도 다양한 저술을 통해서 선법의 이론뿐만 아니라 선수행법과 그 접화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조선 중기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선교차별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입장인데, 청허 휴정의 나이 40대 중반에 저술된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잘 드러나 있다. 휴정은 기존의 선교차별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결국 선과 교에 대하여 선 우위의 입장으로 회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휴정의 이와 같은 선교융합(禪敎融合)의 태도는 그의 만년에 저술된 〈선교석(禪敎釋)〉과 〈선교결(禪敎訣)〉에서는 사뭇 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융합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선가귀감〉의 경우와 달리, 만년에는 선교차별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가령 청허의 저술에 나타난 일반적인 선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당시의 모든 불교에 대하여 교학과 선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려는 태도였는데, 그 하나가 선과 교에 대한 관점으로 나타났다. 선과 교는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고인의 말을 인용하여 그 일치에 동조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선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교학을 평가하는 자세가 주류를 이루었다. 곧 선과 교의 깊고 얕음을 피력하여 교문에서는 오직 일심법(一心法)을 전하고, 선문에서는 오직 견성법(見性法)을 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불의 설법인 경전의 경우는 먼저 제법을 분별하고 나중에 필경공(畢竟空)을 설하였지만, 조사가 내보인 삼구(三句)의 경우는 의지(意地)에서 자취를 제거하고 심원(心源)에서 도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 자취는 조사가 내보인 언설의 가르침이었고, 의지는 선수행자가 지니고 있는 깨치려는 마음이었다.

2. 선교융합에서 선주교종으로

휴정은 상근기를 지닌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말에 한정되지 않지만, 중하근기를 지닌 자는 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교리의 경우는 불변(不變)과 수연(隨緣)과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로서 선·후가 있지만, 선법의 경우는 찰나에 불변과 수연과 성(性)·상(相)과 체(體)·용(用)이 들어 있어서 원래 동시이기 때문에 명안종사(明眼宗師)는 법에 의거하고 언설을 초월하여 직지일념(直指一念)으로 견성성불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휴정의 주장에서 교의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결국 휴정은 선과 교는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점에서는 동일할지라도, 선문과 교문을 통해 공부하는 사람의 수준과 그 행위 및 자취에는 분명히 차별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휴정은 선 우위의 선교차별의 입장이면서도 선교일치(禪敎一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교학과 선법의 상호에 융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선교차별을 위한 임시적인 제스처였을 뿐으로 선주교종(禪主敎從)의 또 다른 포석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은 해동에 선법이 전래된 이후로 선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입장이기도 하였다. 일찍이 고려 중기에 출현한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서도 그랬듯이, 휴정의 경우도 선과 교학의 차이점 내지 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선문에서 내세우는 심인(心印)의 입장은 수행을 시작한다는 것과 깨침을 터득한다는 것조차도 초월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교석〉에서는 선과 교의 차별에 대하여 대조시키면서 분별하여 설명한다. 청허는 옛날의 글에서 인용하여 선과 교의 차별을 17가지 주제에 의거하여 설명하면서, 간혹 주제에 대한 문답형식을 취하여 구체적인 해설을 가하여 선교차별의 전승을 수용하고 있다. 거기에는 〈진귀조사설〉, 성주화상(聖住和尙)이 〈능가경〉을 읽다가 그 한계성을 느끼고 당나라에 유학했다는 내용, 도윤화상(道允和尙)이 〈화엄경〉을 읽다가 마찬가지로 선법의 공부를 위하여 유학했다는 내용, 무염국사와 문성대왕의 문답한 내용 등이 수용되어 있다.



청허선사 진영.

선법 정착과정서 선교차별 경향 대두
고려 중기 지눌 의해 융합 전통 형성
휴정, 禪主敎從 융합에서 선교차별로
백파, 임제종지 활용 간화선 주창 강조

한편 〈선교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청허의 나이 70대 후반에 저술된 것으로서 선과 교의 차별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점에서는 〈선교석〉의 경우와 같은 입장이지만, 선과 교의 각각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교석〉과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선지(禪旨)를 잘못 이해하여 돈점문을 정맥(正脈)이라 간주하고 원돈문을 종승(宗乘)으로 간주하는 자세를 질책하면서 반드시 교외별전의 바른 도리를 터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선과 교의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말이 없는 경지로부터 말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선이고, 말이 있는 경지로부터 말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교라는 말로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결국 선문에서 귀중하게 간주하는 것은 경절문(徑截門)의 활구를 통하여 남을 가르쳐서 깨우치고 자신도 스스로 깨우쳐서 본분종사(本分宗師)의 안목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점은 이전에 휴정이 〈선가귀감〉을 통해서 주장했던 선교일치도 결국은 명목상으로는 선주교종의 융합을 주장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선교차별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선주교종에서 선교융합으로

한편 부휴 선수(浮休善修, 1543~1615)는 무자화두(無字話頭)를 통한 선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부휴의 수행과 사상의 이면에는 항상 교학을 바탕으로 한 좌선의 수행으로 일관하였다. 선수는 널리 대장경을 열람하고 난 이후에 선법에 매진한 보편적인 수행자의 공부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교학의 바탕에 근거한 선법의 수행이었다.

선수는 스승이었던 부용 영관(芙蓉靈觀, 1485~1571)의 학문 방법에 대하여 선지를 깊이 이해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선법의 가풍을 높이 드날리는 것으로 흠모하였다. 이것은 먼저 바른 안목을 터득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결과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격외선지(格外禪旨)의 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와 선에 대한 구분은 무엇이 우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별을 위한 구분이 아니라 명확한 안목을 갖추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교와 선의 각각의 측면으로 분류한 것이었다. 그것은 불법수행의 길잡이인 교학을 통하지 않고서 선법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눈이 없이 길을 가는 것처럼 헛수고만 할 뿐이고, 더욱이 위험천만한 것으로 잘못 사교(邪敎)에 치우칠 염려가 있으며, 또한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선법을 체험하지 않고 교학에만 머물러 있으면 불법(佛法)의 진수를 터득하지 못하여 끝내 열반의 길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경계하였다. 이것은 선법과 교학에 대한 선수의 정통적인 입장을 드러내 준 것이기도 하다.

한편 환성 지안(喚惺志安, 1644~1729)은 선종오가에 대한 일종의 강요서로서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를 편찬하였다. 이것은 일찍이 송 대에 회암 지소(晦巖智昭)가 선종오가에 대하여 선리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인천안목(人天眼目)〉을 바탕으로 하였고, 나아가서 천책(天頙)의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의 내용을 보충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환성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북해 함월(北海涵月)이 붙인 서문(1749)에 잘 드러나 있듯이, 선문의 교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다.

한편 무경 자수(無竟子秀, 1664~1737)는 〈선교대변(禪敎對辨)〉에서 휴정의 〈선가금설록(禪家金屑錄)〉을 근거로 선과 교에 대하여 논하였고, 또 〈진각대사망정록(眞覺大師忘情錄)〉을 근거로 하여 대승원교 · 대승돈교 · 대승시교의 삼교에서 말한 바도 역시 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보았다. 기타 〈불조진심선격초(佛祖眞心禪格抄)〉와 〈순정록(順正錄)〉의 말을 통하여 교문의 걸림이 없는 법은 바야흐로 일미로 돌아가지만, 그 일미의 흔적마저 불식시켜주는 것이 곧 선가에서 일심을 관찰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에 백파 긍선(白坡亘璇, 1767~1852)은 환성의 임제종지의 선리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간화선 수행법의 주창을 강조하였다. 곧 임제삼구(臨濟三句) 가운데 제일구에서 그 도리를 깨치고 수용한다면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의 스승이 될 만한 대장부가 된다고 하였다. 제이구는 제일구를 드러내고 그것을 파악하고 실천토록 하는 방편과 본분의 기능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긍선에게서는 방편과 진실이 두루 드러나고 실행되어 여러 가지 교의가 등장한다.

임제의 삼구에 대하여 백파 긍선은 제일구의 성격을 조사선(祖師禪)에 비유하고, 제이구는 여래선(如來禪)에 비유하며, 제삼구는 의리선(義理禪)에 비유하여 삼종선의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긍선은 본분(本分)과 신훈(新熏)을 두루 보편적으로 제시하여 신훈만 있고 본분이 없는 경우를 의리선으로 보았고, 본분만을 여실하게 드러내면 조사선이라 보았으며, 본분에 신훈을 아울러 제시하는 것을 여래선으로 보았다. 그런 바탕에서 본분진여를 개시하고 진공묘유를 직시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편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긍선의 입장은 선리에 근거한 선법의 강주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선종오가 가운데서 임제종만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기타 사종에 대해서는 모두 방계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휴정의 〈선가귀감〉을 계승한 것인데, 이후 용성 진종(龍城眞宗, 1864~1940)의 어록에도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선종사에서 선과 교의 관계는 때로는 차별 내지 차이의 전통이 주장되었고, 때로는 일치 내지 융합의 전통이 강조되었으며, 때로는 선을 중심으로 삼고 교학을 보조적인 입장으로 내세우는 선주교종의 전통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한국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한 한국선의 보편적인 입장과 특수적인 입장의 양면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